

월간 국제 ODA 동향

(2005. 9. 29.)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분석

[Page]

- 「UN천년개발목표」의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ODA 확대계획 및 혁신적 재원조달 구상 [2]
 - ◆ UN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으로 ODA가 가장 유효한 수단이나, 2010년 ODA 규모에 대한 OECD DAC의 시뮬레이션 결과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DA재원의 추가·보완 수단으로서 혁신적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우리나라 ODA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

주요토픽

- 2004년도 우리나라의 ODA 실적 및 시사점 [10]
 - ◆ ODA 규모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4.2억 달러를 기록, ODA/GNI 비율은 2001년 이후 0.06%를 유지하여 OECD 회원국의 1/4 수준 (참고자료 : 대북지원을 고려할 경우 GNI 대비 원조부담률)
- 원조사업에 대한 OECD 대면협의 사례 분석 [19]
 - ◆ 2005년 9월에 있는 프랑스 타이드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수출신용협약 참가국의 대면협의 사례 및 시사점 분석

단 신

- 세계은행(WB),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키로 [26]
 - ◆ 세계은행 연차총회(2005. 9.)의 개발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요약

자 료

- DAC 회원국의 2010년 ODA 실적 시뮬레이션 [28]

이슈분석

UN천년개발목표의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ODA확대계획 및 혁신적 재원조달 구상

【요약】

- 2000년 9월 국제사회는 「UN정상회의」에서 「UN천년개발목표(MDG)」를 채택하고 2002년 3월 UN 개발재원회의에서 MDG 달성을 위해 2015년까지 ODA를 GNI대비 0.7%수준으로 제고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
- 2005년 9월 개최된 UN정상회의에서 각국의 ODA 증대 공약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ODA확대 시뮬레이션 결과 2010년도 ODA/GNI는 0.36%로 당초 목표인 0.5%에 부족할 것으로 예측
- 이에 따라 전통적 개발재원을 보충·추가하기 위해 지구오염방지, 외환 및 자본거래, 무기거래 등에 대한 글로벌 조세 구상, 자선모금 확대 등 민간기부금 확충 구상, 국제금융퍼실리티(IFF) 등의 금융공학적 구상 등 다양한 재원조달 구상 등이 검토되어왔음
- ODA확대계획을 추진중인 우리나라도 조세에 의한 전통적인 ODA재원조달 방식 이외에 민간자본시장과의 연계 등에 착안한 혁신적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

1. 2000년 UN 정상회의와 2002 개발재원조달을 위한 UN회의

- 2000년 9월 「UN 정상회의」는 2015년까지 극빈층 반감(半減), ODA 확대 등 개발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UN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를 채택
-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Monterrey)에서 개최된 「개발재원조달(Financing for Development) UN 회의」에서 참가국은 ODA가 무역 및 민간투자와 함께 MDG 달성을 위한 유효한 개발재원임에 인식을 공유하고 그 증대노력에 합의

- 동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개도국 내부와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개발재원에 대해 논의
 - 내부재원으로 개도국의 국내저축은 가장 중요한 재원이나 국내자본이 부족한 개도국 현실상 외부재원의 공급이 필수 불가결
 - 외부재원으로 무역, 민간투자, ODA, 채무구제 등이 있으며, 최빈국과 저소득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을 위해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이 결합된 ODA가 민간투자를 보완하는 역할
- 이에 따라 각국은 2015년 MDG 달성을 위해 GNI대비 ODA비율을 0.7% 수준으로 제고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 (「몬테레이 합의」)
 - 이를 위해 2009년까지는 최소한 GNI 대비 ODA비율 0.5%를 달성하고, 동시에 최빈국에 대하여는 GNI 대비 0.15%내지 0.2%를 지원하도록 권고
- ODA/GNI 비율 0.7%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시 600억달러 내외의 ODA수준에 추가하여 연간 약 1,200~1,300억 달러 규모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
 - 글로벌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각국의 ODA 증액노력을 계속해서 점검하기로 합의

2. 각국의 ODA증대를 위한 공약과 예상되는 문제점

- 2005년 9월 개최된 UN 정상회의에서 MDG 달성을 위한 각국의 ODA 증대 공약이 발표
 - 이번 정상회의는 MDG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이행상황을 중간점검하는 것이 주요 의제중 하나
 - 이행목표에 각국의 ODA확대노력도 포함
 -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 등도 ODA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
 - 유럽연합 : 2015년까지 ODA규모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0.7% 달성을 위한 일정표를 제시

- ▶ 중간목표로 2010년 0.56%를 설정
- ▶ 전체 ODA의 50% 이상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지원
- 미 국 : 향후 5년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12억 달러 추가
- 일 본 : 향후 5년내 ODA규모 100억 달러를 증액(아프리카에 대한 ODA는 향후 3년내 배증)
- 스 페 인 : 2012년까지 GNI 대비 ODA규모 0.7% 달성 및 향후 20년간 국제백신면역연대기금에 2.4억 달러 지원
- 아일랜드 : 2012년까지 GNI 대비 ODA규모 0.7% 달성(현수준의 3배 규모)
- 벨 기 에 : 2012년까지 GNI 대비 ODA규모 0.7% 달성 및 전체 ODA의 2/3를 최빈국에 지원
- 중 국 : 향후 3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양허성차관 및 특별수출신용 지원
- 태 국 : 2003년 GNI대비 0.13%인 1.67억 달러 규모 ODA를 인근 최빈국들에게 이미 지원

□ 위와 같은 몬테레이 합의와 각국의 경쟁적 원조확대 공약에도 불구하고 2005년 9월 UN 정상회의에 앞서 각국의 ODA규모 확대 공약을 근거로 OECD DAC사무국이 원조확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향후 개발재원으로서 ODA의 부족이 예측됨

○ 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10년 ODA재원조달 가능규모는 당초 ODA/GNI비율 목표치인 0.5%를 크게 하회하는 0.36%로 예측

- DAC회원국의 2004년 ODA/GNI 0.25%로서 약 800억달러 수준인데 각국의 ODA규모 확대 공약을 근거로 2010년 ODA/GNI비율은 0.36%, 약 1,300억 달러 규모이며 2004년 ODA규모보다 추가적으로 연간 50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이는 2009년까지 최소한 ODA/GNI비율을 0.5%수준까지 달성하기로 한 몬테레이 합의당시의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

- 2004년 ODA실적과 2010년 ODA규모확대에 대한 시뮬레이션결과 도표는 본지 자료편 참조

○ 또한, 동 사무국은 DAC회원국 공공지출항목중 ODA예산지출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중 하나로서 고령연금 재원보충 등 예산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각국 재정상황을 고려시 ODA예산 증액에 난관이 예상

- 고령사회로 진입한 유럽 국가들은 고령연금 등 사회복지예산지출의 확대 • 축소
에 대한 세대간 갈등이 정치사회적 문제로 부각

3. 개발재원조달을 위한 혁신적 구상의 내용

- MDG 달성을 위한 ODA재원으로서 전통적 방식인 예산을 통한 조달방식에
난관이 예상됨으로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혁신적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다양한 구상들이 각국에서 제기, 검토되어 왔음
- OECD 개발센터의 한 보고서(저자: Helmut Reisen, 2004)는 혁신적 재원조
달 방식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목적세를 신설한다는 '글로벌 조세 구상',
자선모금 등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민간기부금 모금 구상', 재원동원규
모를 증폭시키기 위해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금융공학적 구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

글로벌 조세(Global Taxes) 구상

구 분	지구오염방지세	토빈세(외화거래세)	무기판매세
개 요	탄화수소연료의 탄소함 량을 기준으로 동 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현물환, 선도환, 선물환 및 스왑 등 차액(dual rates)이 발생하는 모든 외환거래	주창자들이 구체화하지 는 않고 있으나 UN의 거래신고대상이 되는 재 래식 무기
연간예상세수 규모	리터당 1센트씩 정액세 부과시 1,800억 달러, 고 소득국에만 부과시는 610억 달러 예상	전세계 외환매매액의 0.01% 상당액을 세금으 로 가정시 170~190억 달 러, 0.02%로 가정시는 310 ~ 330억 달러	무기판매금액의 5% 가 정시 최대 25억 달러(단 신고거래규모가 세금으 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전통적 개발재원을 추가하는 효과	높음, 단 상당한 행정비 용 수반, 내국세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정 에 부담	높음, 단 상당한 행정비 용 수반	높음. 기존의 UN재래식무기 신고제도 이용시 추가적 행정부담 없음
기타 편익	환경친화적, 에너지최종소비에 따른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므 로 배분적 효과	환율의 변동성을 감소(?)	무거래 감소(?)
주요비용 및 장애 물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탄소세에 거부감	세율이 이동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 세금이 환율 을 불안하게 할 수도	세율이 높아지면 밀거래 가 늘어

민간 기부금 모금 구상

구 분	자선모금액 증가	복권1) 또는 추첨식 우대금리부 저축채권2)	개발주제별 글로벌기금3)
개 요	세제혜택, 글로벌기금, 기업기부, 인터넷을 통 한 자선모금	스크래치카드나 로또복 권 방식 또는 원금이 보 존되는 저축채권에 소수 의 매입자나 소지인에게 만 추첨을 통해 고금리 를 보장	에이즈·결핵·말라리아퇴 치 글로벌기금 (GFATM) 등
연간예상수입 규모	현재까지 추정불가, 자선모금액규모는 상당 (미국의 경우 GNP의 1.5%), 예상수입규모도 크지만 개발목적의 기부 비중과 세제(소득, 상속) 혜택에 달림	-	-
전통적 개발재원을 추가하는 효과	높음	높음	판단을 위해서는 경험적 연구 필요
기타 편의	-	-	인식제고효과
주요비용 및 장애물	예측불가능, 순수하게 개인의 자발적 행동에 달림	국가복권사업들간의 경 쟁 치열, 공여국내에서 보다 절실한(needy) 사 업에 복권기금의 배분우 선,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세적 효과	DAC 원조조화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경우 기 존 ODA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금융공학적(Financial Engineering) 구상

구 분	국제금융 퍼실리티4)	SDR 신규창출	공적 보증
개 요	미래 원조예산지출에 대한 정부약정을 담보 로 채권을 발행, 민간재 원을 차입하여 기존재 원과 결합하여 레버리 지효과 추구	공여국이 신규창출한 SDR을 개발목적으로 사용하도록 SDR의 주기적 창출 (소로스의 구상)	국내외 공공주체의 리 스크 경감수단 사용, 신용·외환리스크를 인 수하는 보증, 대출, 보 험을 커버

- 1) Global Lottery
- 2) Global Premium Savings Bond
- 3) Thematic Global Funds
- 4)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IFF)

구 분	국제금융 퍼실리티	SDR 신규창출	공적 보증
연간예상수입 규모	10~15년간 약 500억달러	250억 달러, 창출주기와 정치적 의지에 좌우	예상을 위한 경험적 증거부족
전통적 개발재원을 추가하는 효과	전통적 개발금융을 구축하는 효과	전통적 개발금융을 구축하는 효과	민간부문 리스크부담만 큼 높아짐
기타 편익	각국 원조공약에 대한 신뢰도 향상	과도한 외환보유로 인한 위기가능 국가의 디플레 압력에 대항가능,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외환보유국을 MDG자금 제공국으로 참가시킬 수 있음	인프라에 대한 국내외 대행사의 민간투자를 증폭(레버리지)시킬 수 있으며 주인의식 배양
주요비용 및 장애물	제도운용에 충분한 수의 공여국이 참가하여 지속적인 확약 필요, 각국별 지급능력 상이, 미래세대에 대한 지불부담전가로 헌법상 문제	IMF회원국의결권의 85% 필요(100개국)로 비준 곤란,SDR제공국가의 이자 수입 상실, 인플레이 압력 증가가능성	과도한 리스크부담으로 도덕적 해이초래 가능, 정경유착과 로비로 인한 지대추구, 채무감당능력 불균형

□ 이상의 다양한 구상중 예상수입규모와 기존 전통적방식의 개발재원을 추가하는 효과, 재원획득의 신속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금융퍼실리티(IFF)와 추첨식 우대금리부 글로벌 저축채권과 공적보증(Public Guarantee) 방식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분석됨

○ 영국 재무부와 개발협력부가 공동제의한 IFF구상은 최근 40억 달러규모의 번역사업으로 구체화됨 (Financial Times 2005. 9. 9.)

- 빈곤개도국 어린이 천만 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B형 간염, 홍역, 소아마비, 6대 전염병 백신보급을 위해 영국은 35%의 재원을 부담키로 하고, 연간 1억 3천만 달러, 프랑스는 연 1억 달러 규모로 참여하며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참여 발표 예정
-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스웨덴, 남아공, 중국, 호주, 캐나다 등과 참여를 협의 중이라고 밝힘
- 한편 빌 게이츠의 자선재단도 10년간 7억 5천만 달러 출연 약정

○ 지구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보호 목적의 지구오염방지세, 투기적 외환
 • 자본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빈세, 무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무기판매세 등 글로벌 조세구상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나 시행상 문제점 노출

- 글로벌 수준에서 시행하는 지구오염방지세에 대해 정치적 반대가 가장 심하며 기타구상은 부과와 징세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지적
- 위의 OECD 보고서는 전통적 방식과 함께 혁신적 방식의 일부를 결합한 대안이 개별적 방식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조세든 그 이외의 방식이든 최종적으로는 민간부문이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각 공여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방식을 메뉴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3. 우리나라 ODA 재원조달에 주는 시사점

- 기획예산처의 2005년~200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상 ODA확대계획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 전입(KOICA무상원조)과 기금으로부터의 재정투자(EDCF)로 구성
 - 동 중기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ODA/GNI비율은 '04년 0.06%(약 4억 달러)에서 '09년 0.1%(총지출기준, 연간 약 9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
 - 장기적으로 '09년 이후에도 ODA 지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추세가 예상
 - 2005년 9월초 MDG달성을 위한 20개 국내개발NGO와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대통령에게 ODA/GNI 비율을 2009년 0.1%에 이어 2015년까지 0.2%로 증대할 것을 건의
- 우리나라의 ODA 확대계획도 예산과 기금 등 재정에 의존하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예산재원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혁신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대북지원, 국방 및 복지예산 확대 등 대규모 재정지출 및 투자수요가 현실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산상황에서도 ODA지출예산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출항목이 될 전망
 - 최근 6담회담의 결과 경수로 건설 또는 송전시설 지원 등 대북지원에 향후 11조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2006년도 예산안상 가장 증가율이 높은 세출항목인 국방 및 복지부분에 대한 세출증가율은 9% 수준인데 비해 2005년~200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대로 ODA 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증가율은 연평균 약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항공권에 부과하는 관광기금에 소액부과금을 추가하는 방안, 로또복권기금의 배분에 참여하는 방안 등 추가 재원조달방안 등이 간헐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 관광기금 부과금은 목적세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 고유가로 어려운 항공업계에 대한 부담 가중 등으로 재정부, 건교부 등 반대
 - 복권기금에는 이미 배분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부처/기관의 반대 예상
- 각 방안을 구체화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들에 대한 검토후 현실성 있는 방안을 예산전입 등 재정에 의한 조달방식과 함께 결합하여 사용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
- 상기 OECD 보고서상 유효한 개발재원의 조달경로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국내의 민간자본시장과의 연계에 착안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

참고자료 : 1. Helmut Reisen, " Innovative Approaches to Fun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ECD Development Center Policy Brief No.24, "2004

2. OECD DAC, "How much aid is really new aid? (DAC News Sep-Oct 2005)

3. Sagasti, F., K Bezanson and F. Frada, "The Future of Development Financing: Challenges and Strategic Choices", 2004. Oct. Global Development Studies,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the University of Sussex, UK

4.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대학(GRIPS), "Innovations in Development Finance", The Issue in Brief, <http://www.grips.ac.jp/csids/subject/subject03.pdf>

작 성 : 정창호(chung@koreaexim.go.kr)

목차보기

주요토픽 1

2004년도 우리나라의 ODA 실적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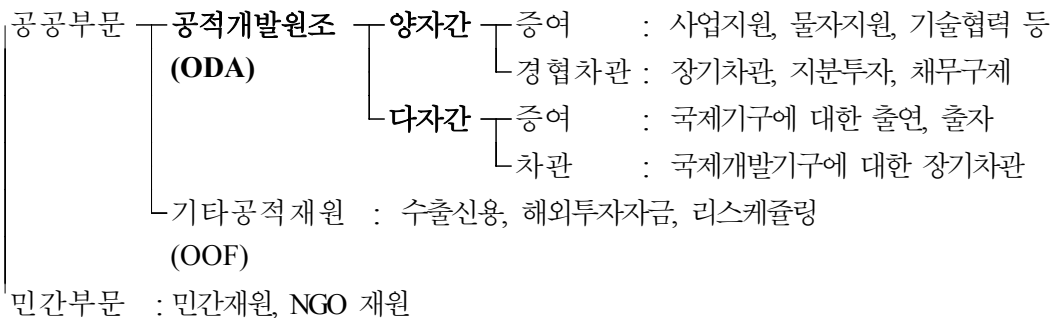
【요약】

- 2004년 중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는 4.2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15.7% 증가
- GNI 대비 ODA 규모는 2001년 이후 0.06%를 유지 (OECD DAC 회원국의 1/4 수준)
- 양자간 증여 : 양자간 차관 : 다자간 원조 = 5 : 3 : 2
- 양자간 ODA의 81.6%를 이라크,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에 지원
- 최빈개도국 비중은 24.4%, 차관의 증여율을 감안한 전체 ODA 증여율은 90.3%
- 주요 지원분야는 보건, 행정, 교육, 상하수도, 교통, 통신, 에너지

1. ODA 통계 개요

- ODA 통계는 OECD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지원하는 개발원조 통계로서 DAC회원국(22개)과 우리나라 등 비회원국(8개국)은 OECD에 매년 실적을 보고
- 통계의 목적은 대개도국 원조 공여현황 및 개도국 채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국간 원조정책과 실적을 비교·평가하는 것임

ODA 통계의 구성⁵⁾



5)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위 통계분류를 기초로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및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Aid Recipients를 매년말 작성·배포

2.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

□ '04년 중 ODA 순지출 규모는 4.2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15.7% 증가

○ 양자간 원조가 대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물자지원, 국방부 지원활동의 ODA 포함, 경협차관 집행증가 등에 힘입어 34.9% 증가했으며, 특히 양자간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45.8%)

- 증여는 물자지원을 포함한 프로그램원조가 32%, 프로젝트 원조가 27%, 기술협력이 25%로서 자금협력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라크 및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지원이 각각 34%, 10%를 차지
- 경협차관은 경제·사회인프라를 중심으로 1.2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동년도 중신규로 2.4억 달러를 승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다자간 원조는 9,260만 달러를 지원하여 전년대비 23.3% 감소

- UN, 세계은행 등에 대한 지원이 예년 수준을 다소 하회하고, 국내에 유치한 국제백신연구소 일시분담금(1,800만 달러)이 없어짐에 따라 전년대비 23.3% 감소. '05년에는 IDB 가입에 따른 지원증가에 힘입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ODA 지원규모(2004년 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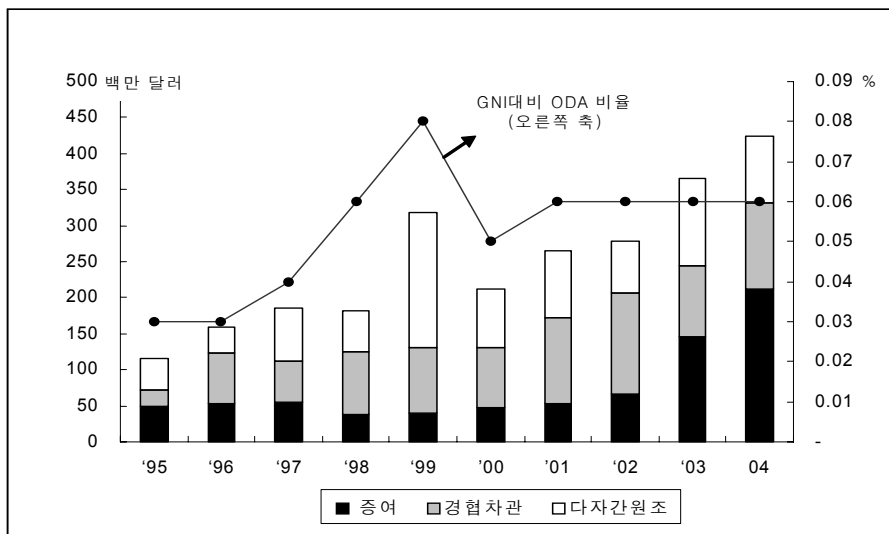
	2003	2004	증감률(%)	비중(%)
ODA (A+B)	365.9	423.3	15.7	100.0
양자간 ODA (A)	245.2	330.7	34.9	78.1
증여	145.5	212.1	45.8	50.1
경협차관	99.7	118.7	19.1	28.0
다자간 원조 (B)	120.7	92.6	△23.3	21.9
ODA/GNI(%)	0.06	0.06	-	-

○ 양자간 : 다자간 지원 비중은 78 : 22로 전년대비 양자간 비중이 11% 포인트 상승했으며, 양자간 증여 : 양자간 차관 : 다자간 원조 = 5 : 3 : 2로 이라크 특수 요인 등에 힘입어 양자간 증여가 최초로 50%를 상회

□ GNI 대비 ODA 비율은 '01년 이후 0.06% 유지

- 국민총소득 대비 ODA 규모는 0.06%로서 최근 4년간 동일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ODA 부담액은 8.8달러 수준임
- '04년도 OECD DAC 22개 회원국 평균인 0.25%의 1/4 수준에 그침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 추이



3. 지원형태별 규모

- 양자간 원조는 증여(64%)와 경협차관(36%)으로 대별되며, 다자간 원조는 UN기구, 세계은행, ADB 등 국제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
- 증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원조(물자지원 등) 형태의 자금협력이 1억 2,378만 달러, KOICA와 정부부처의 전문가 파견, 연수생 교육 등 기술협력이 5,383만 달러, 비상재난구호가 1,290만 달러를 기록
- 경협차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대개도국 차관지원으로 1억 1,868만 달러 순집행
- 다자간 원조는 UN기구 분담금 2,158만 달러, 세계은행그룹 출연·출자 4,418만 달러, ADB 등 국제개발금융기관 출연·출자 2,829만 달러 등

지원 형태별 ODA 규모(순지출)

(단위 : 백만 달러)

양자간 원조	증 여							경협 차관
	프로젝 트원조	프로그 램원조	기술 협력	비상재 난구호	NGO 지원	행정 비용	기타	
330.76	56.57	67.2	53.83	12.90	2.15	17.51	1.93	118.68
다자간 원조	분담금, 출연, 출자					차관		
	UN기구	세계은행 (IDA)	세계은행 (IDA 외)	개발금융기관 (ADB 등)	기타			
92.56	21.58	43.67	0.51	28.29	8.53	△10.02		

4. 지역 • 국가별 지원규모

□ 양자간 ODA의 81.6%(2억 7,004만 달러)를 아시아에 지원하였으며, 이후 아프리카(1,700만 달러), 중남미(1,489만 달러) 순

○ 증여 및 경협차관의 지리적 배분도 유사하여 아시아 지역이 각각 77.1%와 89.8%를 차지

지역별 ODA 규모(순지출)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 럽	대양주	기 타*	합 계
증 여	163.47	14.84	10.82	0.52	0.90	21.55	212.09
경협차관	106.57	2.17	4.07	6.51	-0.64	0.00	118.68
양자간 합계	270.04	17.00	14.89	7.03	0.27	21.55	330.76

* 특정국가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배정된 경우임

□ 국가별로는 이라크*에 총 7,215만 달러를 지원하여 양자간 ODA의 21.8%가 집중되었으며,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등이 주요 지원 대상국가

* 국방부의 자이툰부대(9,215만 달러) 파견은 치안이 주 목적으로 ODA에 해당되지 않아 이라크 지원실적에 포함시키지 않음

○ 상위 10대 국가에 양자간 ODA의 74.6%를 집중

국가별 ODA 규모(순지출)

(단위 : 백만 달러)

국 가	증여	경협차관	합계	국 가	증여	경협차관	합계
1 이라크	72.15	0.00	72.15	6 방글라데시	2.05	16.36	18.41
2 베트남	11.69	24.75	36.45	7 인도네시아	7.57	9.40	16.97
3 중국	5.85	19.40	25.25	8 스리랑카	1.93	14.63	16.55
4 캄보디아	3.94	19.94	23.88	9 필리핀	7.22	0.98	8.20
5 아프카니스탄	21.54	0.00	21.54	10 알바니아	0.01	7.19	7.20
상위 10개국 합계	133.95	112.65	246.6	기타 113개국	78.14	6.03	84.16

□ 수원국 소득수준별로는 양자간 ODA의 24.4%를 최빈국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국 19.4%, 하위중소득국 47.8%, 상위중소득국에 1.8%를 지원

소득수준별 ODA 규모(순지출)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최빈개도국 (UN지정)	저소득국 (1인당 GNI <745달러)	하위 중소득국 (<2,975달러)	상위 중소득국 (<9,205달러)	고소득국 (≥9,205달러)	분류불가	합계
증 여	43.94	28.82	111.52	5.89	0.09	21.83	212.09
경협차관	36.81	35.42	46.45	0.00	0.00	0.00	118.68
합 계	80.75	64.23	157.97	5.89	0.09	21.83	330.76

* 소득수준은 2004년도 DAC Statistics Reporting directives에 따라 2001년도 GNI 기준을 적용

5. 분야별 지원규모(총지출 기준)

□ 보건, 교육, 행정 등 사회인프라 부문에 1억 8,817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교통, 통신, 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부문에도 1억 649만 달러를 지원

- 사회인프라는 보건과 행정부문이 각각 5,023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후 교육(3,925만 달러), 상하수도(3,590만 달러) 순
- 경제인프라는 통신부문이 4,143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후 교통(4,077만 달러), 에너지(2,311만 달러) 순
- 생산부문은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1,805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기타 비상재난구호, 행정비용 등으로 3,464만 달러를 집행

양자간 ODA의 분야별 배분

(단위 : 백만 달러)

지원분야	프로젝트 원 조			프로그램 원 조	기술협력	양자간 ODA
		(증 여)	(경협차관)			
사회인프라	98.08	(26.74)	(71.34)	59.04	29.05	186.17
- 교육	24.36	(10.46)	(13.90)	6.30	8.59	39.25
- 보건	23.47	(5.46)	(18.01)	18.28	8.47	50.23
- 상하수도	34.71	(0.01)	(34.70)	0.02	1.16	35.90
- 행정·민간역량강화	12.58	(7.86)	(4.72)	34.31	3.33	50.23
경제인프라	86.99	(22.69)	(64.30)	5.13	14.37	106.49
- 교통	39.53	(-)	(39.53)	0.01	1.24	40.77
- 통신	26.55	(19.14)	(7.41)	2.96	11.93	41.43
- 에너지	20.06	(2.70)	(17.36)	2.17	0.88	23.11
생산분야(농수산, 제조업)	6.77	(6.55)	(0.22)	2.98	8.29	18.05
복합분야	0.46	(0.4)	(-)	0.00	2.12	2.58
재난구호 등 기타	-	(-)	(-)	0.04	-	34.64
합 계	192.30	(56.45)	(135.85)	67.20	53.83	347.93

- 증여는 행정, 보건, 교육 등 사회인프라를 주로 지원하고, 경협차관은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환경), 교육 등 경제·사회 인프라를 주로 지원

6. ODA 지원 조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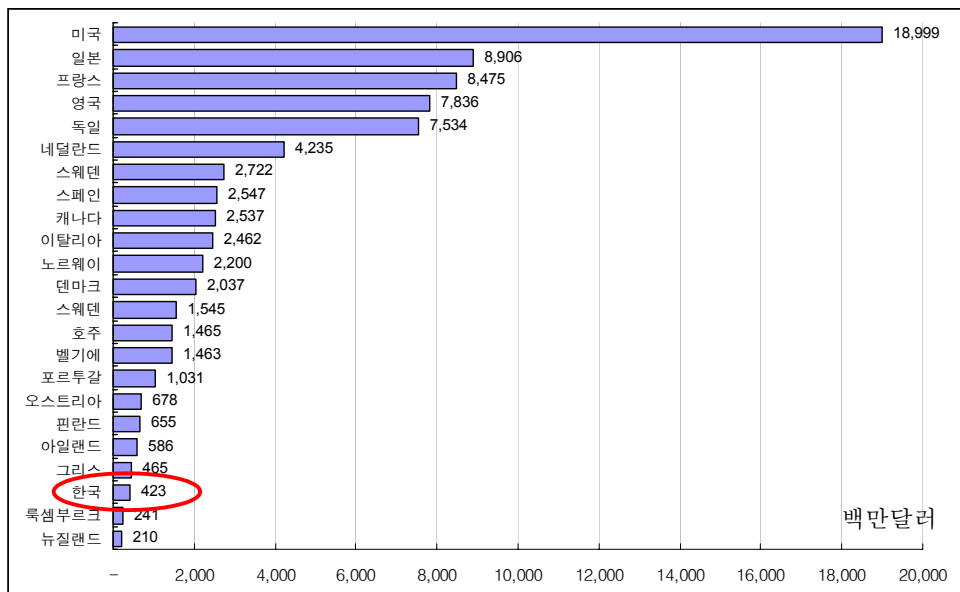
- 경협차관의 지원조건은 상환(거치)기간 30(10)년, 이자율 1.0~2.5%로서 평균 G.E.(증여율) 68.8%를 기록했으며, 증여 및 다자간 원조를 포함한 전체 ODA 평균 증여율은 90.3%로서 DAC 권고치(86%)를 상회
- 기술협력을 제외한 전체 ODA의 타이드 수준은 언타이드 4.2%, 부분 언타이드⁶⁾ 15.0%, 타이드 80.8% 수준임

6) 구매적격국을 공여국과 전체 개도국 수준으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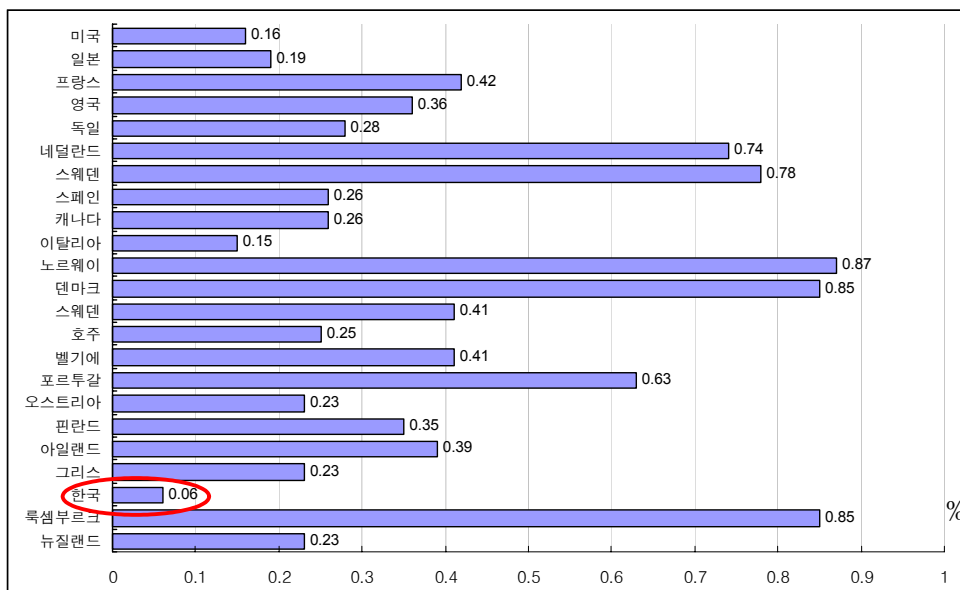
7. ODA 지원규모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지원규모는 0.06%로서 OECD DAC 22개 회원국의 2004년(잠정) 평균인 0.25%의 약 1/4 수준에 그침

OECD DAC 회원국의 2004 ODA 지원실적(잠정)



OECD DAC 회원국의 2004 ODA/GNI비율(잠정)



8. 시사점

-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소득 대비 지원수준은 0.06%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ODA 확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
 - 다만, 향후 ODA 확대 시 대북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대북한 지원과 ODA' 참조)
- 지원국가가 아시아 및 상위 10대 국가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전략 및 중점 지원국가에 대한 분야별 전략 마련을 통해 ODA 지원효과를 높여야 할 것임
- ODA의 전체 증여율이 90.3%로서 DAC 권고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최빈국에 대한 지원비중이 24.4%로 DAC 평균에 비해 낮고, 전체의 95.8%가 구속성(타이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함
- 양자간 증여 중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특수 요인에 따른 물자지원이 높은 비중(44%)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의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다자간 원조 중 76%가 세계은행 및 ADB 등 지역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출연 • 출자이고, IDB 가입에 따른 지원증가가 예상되므로 국제개발 금융기관의 발주정보 조기입수, 프로젝트 담당자 초청세미나, 국내 기업별 데이터관리 등을 통해 국제개발금융기관(MDB)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를 활성화해야 함
 - 수출입은행 MDB 상담센터(www.koreaexim.go.kr)를 적극 활용

※ 참고자료 : 대북한 지원과 ODA

- 통일부의 대북 지원사업은 ODA에 포함할 수 없지만, ODA와 합산 후 GNI 대비 부담규모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 0.11%를 기록
- 대북지원은 국내간 거래로서 정의 상 ODA가 아니며, 대북 지원정책은 OECD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ODA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음

대북지원 감안한 지원규모('04년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구 분	2003	2004	증감률(%)	비중(%)
ODA (A+B)	365.9	423.3	15.7	100.0
양자간 ODA (A)	245.2	330.7	34.9	78.1
중여	145.5	212.1	45.8	50.1
경협차관	99.7	118.7	19.1	28.0
다자간 원조 (B)	120.7	92.6	△ 23.3	21.9
ODA/GNI(%)	0.06	0.06	-	-
대북지원	579.0	322.2	-	-
중여	142.0	118.7	-	-
유상차관	437.0	203.5	-	-
(ODA+대북지원)/GNI(%)	0.16	0.11	-	-

참고자료 : 1. 재정경제부 요청에 따른 62개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제출자료

2. OECD, Internatio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http://www.oecd.org/dataoecd/50/17/5037721.htm>

작 성 : 서정화 jhseo@koreaexim.go.kr, 김보경 kbk3807@koreaexim.go.kr

목차보기

주요토픽 2

원조사업에 대한 OECD 대면협의 사례 분석

— 프랑스의 몬테네그로 배전망개보수사업 —

【요약】

- 미국의 이의제기로 상업성 여부 판정을 위한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⁷⁾ 참가국 전체대면협의⁸⁾ 개최 확정('05. 8. 26.)
- 프랑스측은 동 사업의 현금흐름으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동 사업은 상업성이 없으며, 따라서 타이드윈조 적격 사업임을 주장
- 사전 분석한 결과, 프랑스측이 제출한 사업타당성보고서(F/S)에 적용된 사업의 정의 및 재무분석의 제가정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OECD 대표부 및 수출입은행 파리사무소를 통해 대면협의에서 상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의견 표명
- 대면협의('05. 9. 21.) 결과, 협약참가국은 현금흐름으로 볼 때 동 사업의 상업성을 인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공적수출신용으로 동 사업을 지원('Cover')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임에 따라 동 사업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 원조사업에 대한 심사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의 상업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

1. 대면협의 상정 경과

- '05. 5. 23. 프랑스, 동 사업에 대한 OECD앞 사전통보
- '05. 5. 24. 미국, 동 사업에 대한 기본자료 요청
- '05. 5. ~ 8. 미국과 프랑스간의 의견교환 및 협의 진행

7)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OECD

8) 대면협의(Consultations Group Meeting)란 특정 타이드윈조 사업이 상업성이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이하 "협약") 참가국(Participant) 모두가 참석하여 검토하는 회의를 말하며, 협약에서는 상업금융 또는 공적수출신용으로도 수행이 가능한 개도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타이드윈조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 '05. 8. 24. OECD 수출신용사무국, 동 사업에 대한 전체대면협의 확정 통보 및 각국의 참석자 명단 통보 요청 (대면협의 일자 : '05. 9. 21.)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몬테네그로 배전망 개보수 사업(Rehabilitation of Electricity Distribution Network of Montenegro)

나. 차주 및 사업실시기관 : 몬테네그로* EPCG(몬테네그로전력공사)

* 세르비아-몬테네그로는 '06년까지 한시적으로 유고연방으로 계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각 주권국가로 세계은행 분류 Category III 및 EDCF 국가 분류 4 그룹에 해당하여 타이드원조 적격국임

다. 공여기관 : 프랑스 경제재무산업부(MINEFI)

라.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목적 : 몬테네그로의 낙후된 배전망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송배전망 운용 효율 제고

□ 사업범위

- 1차 변전소(35/10kV급) 7개, 2차 변전소(10/0.4kV급) 60개 개보수
- EPCG앞 운용기술 컨설팅

마. 사업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

(단위 : € 천)

구 분	외화소요비용	현지소요비용	합 계	구 성 비
1차 변전소	6,216	573	6,789	65.5%
2차 변전소	1,974	1,300	3,274	31.6%
이동변전소	288	7	295	2.8%
합 계	8,479	1,880	10,359	100%
재 원 조 달	프랑스* (81.9%)	EPCG (18.1%)	-	-

* 프랑스 MINEFI(경제재무산업부)의 신흥시장기금(RPE)

3.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분석(Financial Appraisal)

가. 몬테네그로 시장 현황(2004년 기준)

발전 현황

국내 수요	전 력 공 급	
	국내발전	輸入전력
4,598MWh	2,798MWh	1,800MWh

* 세르비아의 발전소

송전망 현황 : 400kV선 250km, 220kV선 300km, 110kV선 650km

배전망 현황

배 전 압	35kV	10kV	0.4kV
총 연 장	1,150km	4,250km	14,000km
배 전 소	110개	3,800개	-

전력 사용량

(단위 : GWh)

구 분	총전력소비량	110kV급 ¹⁾	35kV~400V급	배전손실 ²⁾	송전손실 ³⁾
사 용 량	4,598	2,064	1,961 ⁴⁾	402	171
평균단가/kWh	-	€ 1.54	€ 6.25	-	-

주 : 1. 산업용 전력으로, 부족 전력은 국제시장에서 조달될 예정

2. 통상 최신 설비의 배전손실율은 6~8%이나, 몬테네그로의 배전손실율은 17%임

3. 총소비전력에 대한 송전손실율은 3.7%

4. 1,961GWh중 250GWh는 채납(un-paid bills) 등 비기술적인 요인에 의한 손실로 EPCG 2004년도 총배전전력 2,362GWh의 1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임

나. 주요 가정

에너지 수급

○ 전력사용량증가율은 연 1.3%, 전력손실율은 연 0.6%씩 감소(비기술적 손실 포함)

주요 수익 가정

○ 전력요금

구 분	110kV 고압망 연결 ¹⁾	110kV 이하 배전망 연결 ²⁾
단가/kWh	€ 2.044 ~ € 2.5	€ 6.205 ~ € 7.0

주 : 1. 산업체 및 공단 등에 대한 요금
2. 가계(household)에 대한 요금

○ EPCG의 기타 수익은 연 2%로 증가

주요 비용 가정

○ EPCG 직원 감축률은 연 3%, 직원 연평균 급여는 월 € 800으로, 기타 운용비는 추정기간 동안, 체납률은 연간 전력 청구금액의 11%로 고정

Cash Flow 분석을 위한 상업금리 가정

구 분	외화비용	현지화비용	합 계
금 액	€ 8.48백만	€1.88백만	€ 10.36백만
차입금리	4.61% p.a. ¹⁾	18% p.a. ²⁾	-

주 : 1. 프로젝트의 재무분석은 상업금융지원을 전제로 분석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최저 상업금리로 인정되는 수출신용의 유로화 직접대출 금리인 CIR(‘05년 5월, 4.61%)와 최저기준요율(minimum premium rate) 14.01%를 적용
2. 몬테네그로내 현행 최저 단기차입금리 적용

다. 사업타당성보고서(F/S)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프랑스측, 상업성이 없는 프로젝트로 주장

○ 건설기간 2년 및 전력분야에 대한 수출신용기간인 10년, 총 12년에 대한 EPCG 전체(Global Approach)의 수익-비용에 대한 재무분석 결과, ‘타이드윈조에 대한 사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석대상 최종연도의 누적 순현금흐름이 負(-)의 값임에 따라 상업성이 없는 프로젝트로 주장

□ 재무분석상의 문제점

○ 프로젝트 정의 및 전력요금

- 몬테네그로내에서 생산된 전력이 세르비아로 송전 및 배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차주인 EPCG의 수익 및 동 사업의 상업성 관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사업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는 전력요금체계, 연 1.3%의 전력사용량 증가율 등의 적용이 현실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함

○ 현지화소요비용에 대한 국내 단기차입금리의 현실성 여부

- 사업의 상업성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기차입금리에 대한 민감도 분석시 기본가정 18% 보다 높은 19% 및 20%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기본가정인 18% 보다 낮은 차입금리를 적용할 경우, 누적순현금흐름이 正(+)의 상태가 되어 프로젝트가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국내 단기차입금리 민감도분석 결과

구 분	기본가정	자체 민감도분석	
	18%	17.5%	16.5%
최종년도 누적순현금흐름*	€△ 34.4백만	€△16.9백만	€ 5.52백만

* cumulative net cash flow including interest

- 또한, 단기차입금리는 현지화소요비용에 대한 조달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업실시기간동안 발생하는 부(-)의 누적순현금흐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차입에 대한 금리로도 적용되는데, 부족현금에 대한 차입비용은 연 18%인 반면 잉여현금의 재투자수익률은 연 4%로 하고 있어 가정의 현실성 및 논리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

○ 기타 가정의 적정성

- 향후 몬테네그로의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은 점 및 EPCG의 회수노력 정도에 따라 전력요금 연체율이 낮아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등에 따른 '비기술적 손실'(non-technical losses)을 2004년도 총배전전력의 11%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논란이 대상이 될 수 있음

4. 대면협의 결과

□ 주요 쟁점

- 프랑스는 F/S분석의 근거와 결과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몬테네그로의 공공분야에 대한 IMF의 양허성자금의 지원이 불가능한 현실을 들어 동 사업의 추진을 요구
- 반면, 참가국들은 위에서 사전적으로 분석된 바와 같이 현지화소요비용에 대한 국내 단기차입금리 및 재투자수익률 가정의 비현실성, 보조금 성격의 전력요금 체계, 전력사용량 증가율의 적정성, 지나치게 높은 비기술적 손실 (non-technical loss) 가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

□ 최종 결론 및 시사점

- 의장의 최종의견 조회('Tour-de-Table') 결과, 상업성⁹⁾ 판정을 위한 **First Key Test**인 사업의 재무적 상업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및 EU 등 참가국의 대부분이 가정의 비현실성 등을 들어 정상적인 전제하에서는 상업성이 있는 사업(**commercially viable project**)으로 결론을 내림
- 반면, 동 사업과 유사한 성격 및 규모의 사업을 각국의 공적수출신용으로 실제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Second Key Test**)에 대해서는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지원이 어렵다(**off cover**)는 의견¹⁰⁾을 제시함에 따라 동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지어짐
- 비록, 프랑스의 원조사업이 고위험국에 대한 사업으로 다른 참가국의 지원이 용이하지 않아 당초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원조사업을 추진할 때, 일단 상업성이 있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신중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함을 원조 공여국에 환기한 사례이며, 일단 대면협의를 제기될 경우에는 공여국의 행정적 부담도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사례임

9)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에서는 상업성이 있는 사업 즉, 공적수출신용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타이드원조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OECD 타이드원조 사전지침에서는 "Key Test"로 불리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은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함. 【상업성 판정 조건】 ① **First Key Test** : 시장원칙에 의해 결정된 적정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된 현금흐름으로 운용비용(operating cost)의 총당 및 차입 원리금의 상황이 어려운 사업 [financially non-viable], ② **Second Key Test** : 해당 사업에 대해 공적수출신용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참가국간 인정되는 경우 [commercially non-viable or cover non-available] 단, Second Key Test에서 공적수출신용 지원 가능성은 참가국의 지원 의향이 아닌 제도(규정, 방침 등)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를 의미함

10) 몬테네그로는 고위험국에 해당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출입은행의 공적수출신용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 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에 대한 공적수출신용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표명

- 참고자료 : 1. OECD, "Feasibility Study, F09/05 - Rehabilitation of Electricity Distribution Network - Serbia and Montenegro", 2005. 9.
2. OECD, "Summary of the Outcomes of the 70th Meeting of the Consultations Group", 2005. 9. 23.
3. 수출입은행 파리사무소 및 오이시디대표부, "제70차 Consultations Group 회의 결과 보고", 2005. 9.

작성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목차보기

단 신

세계은행, 인프라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키로

- 2005년도 세계은행 연차총회 개발위원회 보고 자료 정리 -

□ 향후 수년간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출 증액 예정

- 세계은행의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향후 수년간 개도국의 인프라사업에 연간 10억 달러 정도의 추가지원을 계획

* '05년도 세계은행 연차총회('05. 9. 25.)에 제출된 보고서로 원제는 'Infrastructure and the World Bank - a Progress Report'

- 동 계획은 10여 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던 세계은행의 인프라부문에 대한 지출을 증가세로 반전되게 하는 것임

- 동 보고서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개도국은 성장 및 사회전반의 개발목표 달성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막대한 인프라 갭(infrastructure gap)을 바로 잡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 동시에 세계은행은 차관과 비차관 지원의 재구성 및 최근 10여년간 경험한 인프라부문의 지원 감소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수단 강화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 연간 10억 달러씩 증액, 세계은행 전체 차관의 40%가 인프라에 지원될 예정

- '04년 74억 달러에서 향후 2~3년간 매년 10억 달러씩 증액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세계은행 차관에서 인프라 지원의 비중이 '99년의 21%에서 향후에는 40%로 지출이 증가될 예정

- 이러한 세계은행의 조치는 최근 10여년간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도로, 발전(發電) 등 개도국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삭감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

- 현재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는 평균적으로 GDP 대비 2~4% 수준이나,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GDP 대비 5.5%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저소득 개도국의 경우는 7~9%의 인프라 투자를 목표치로 설정

□ IFC, MIGA를 통해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 유도

-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인프라 투자 감소에 따른 인프라 갭을 민간부문이 매우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세계은행의 상업금융 부문인 IFC 및 MIGA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을 제시
- 실제로 개도국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는 90년대말 연 1,000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연 500억 달러로 감소한 상태

□ 지역별 소요 인프라에 따른 중점지원 예정

- 인프라 투자가 가장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은 인프라 투자 부진이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인프라 투자 방향은 역내 교역을 촉진하고 통합된 에너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 특히 지역 전력망(regional power grids)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
- 중남미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된 지역으로 기존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
- 중동의 경우 상수도(water supply) 부문의 투자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

자 료 : World Bank, "Infrastructure and the World Bank - a Progress Report", 2005. 9. 12,
작 성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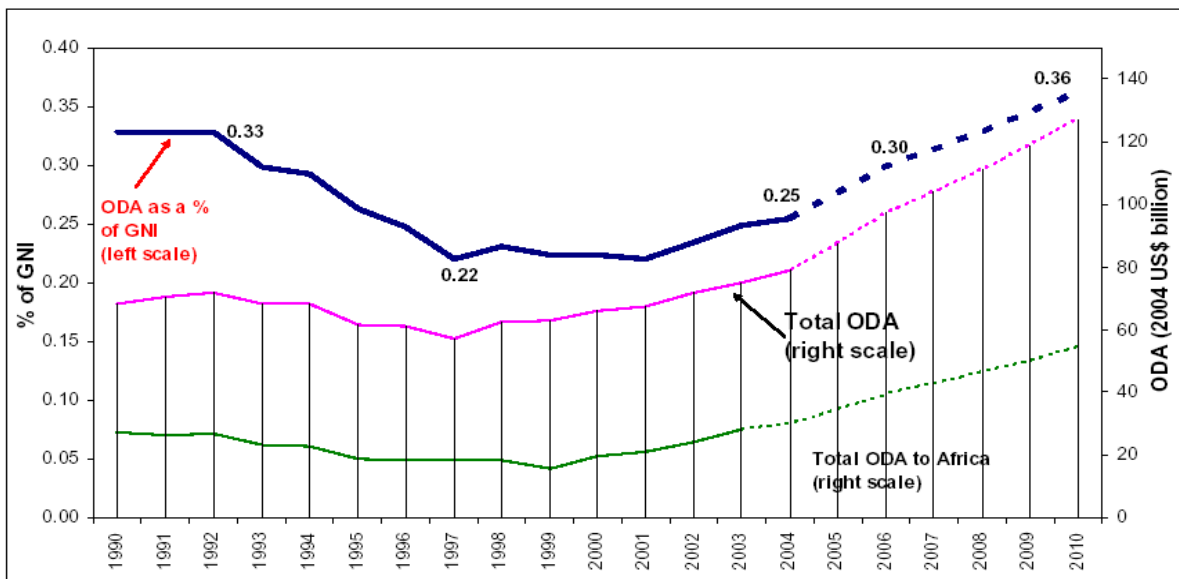
목차보기

【자료】

DAC 회원국의 2010년 ODA 실적 시뮬레이션

- DAC 회원국에 대한 OECD 사무국의 ODA 규모 확대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004년 789억 달러에서 2006년에 970억 달러, 2010년에 1,2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기준 : 순지출)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4년		2006년		2010년	
	Net ODA*	ODA/GNI	Net ODA	ODA/GNI	Net ODA	ODA/GNI
EU국가	42,966	0.35%	54,132	0.43%	80,633	0.59%
DAC 전체	78,870	0.25%	97,233	0.30%	127,876	0.36%

* DAC 사무국의 잠정집계

- 상기 ODA 규모는 DAC 회원국이 그간 공개적으로 밝힌 ODA 확대약정을 기초로 추정된 것임
- EU 국가들은 2010년까지 ODA/GNI 비율을 최소 0.51%, 최대 1%(EU 평균 0.59%)로 확대하며, 규모면에서는 2004년도 430억 달러에서 2010년 806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2004년도 0.16%에서 2010년도 0.18%로 비율에서는 약간 높아지나, 규모면에서는 190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2004년 89억 달러에서 2005~2009년 사이에서 100억 달러를 추가 공여할 예정이며, ODA/GNI 비율은 2004년 0.19%에서 2010년 0.2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자 료 : 1. OECD DAC Secretariat, "DAC Members' net ODA 1990 - 2004 and DAC Secretariat simulations of net ODA to 2006 and 2010", DACNews Sep-Oct 2005, <http://www.oecd.org/dataoecd/57/30/35320618.pdf>
2. 오이시디대표부, "ODA 규모 확대 시뮬레이션", 2005. 9. 7.

작 성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목차보기